

〈세경본풀이〉의 통사론적 규칙과 서사 의미론

오세정*

〈차 례〉

1. 서론
2. 〈세경본풀이〉의 통사론적 규칙과 서사 구성
3. 〈세경본풀이〉의 구성 원리에 기반한 서사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의는 농경 기원 신화 〈세경본풀이〉를 대상으로 서사의 통사론적 규칙을 찾고 이를 토대로 신화 서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서사는 ‘여성 인간’이 ‘여성 신’이 되는 이야기인데, 전체 서사의 최초 상황에서 최종 상황으로의 변화는 서사를 이루는 변형 단계의 단위 형태인 신화소의 통사 규칙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는 ‘문도령과 만나기’와 ‘문도령과 헤어지기’, ‘정수남을 죽이기’와 ‘정수남을 살리기’의 대립 체계로 표현할 수 있다. 전체 서사에서 자청비는 문도령과 만나기 위해 정수남을 죽이고,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문도령과 헤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청비는 타고난 존재론적 정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천상의 여성 신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인간 세계의 농경신으로 좌정한다.

〈세경본풀이〉의 통사론적 규칙에 따르면 이 서사는 자청비와 정수남의 서사가 틀을 이루며, 세경신 신직의 체계에서도 자청비와 정수남과 달리 문도령은 명목상 존재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람 죽이기’와 ‘사람 살리기’의 대립 체계 속에서 자청비의 행위와 역할을 이해한다면 자청비가 세경신이 되는 과정과 그 함의가 보다 명확해 진다. 자청비는 반복되는 죽이고 살리는 행위 끝에 지상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살리기의 방법으로 농경을 선택한 것이다. 이 신화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여성 인간이 ‘여성/남성’, ‘인간/신’의 존재론적 제약을 모두 뛰어넘는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역량을 발휘하고 누군가에 예측된 존재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독립적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지상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살림’의 가치가 바로 농경이라는 것을 지시한다.

주제어 <세경본풀이>, 농경 기원 신화, 여성 영웅 신화, 통사론적 규칙, 서사 의미론, 계열체, 이항 대립

1. 서론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세경본풀이>는 여성 주인공 자청비가 인간에게 곡종을 전해 주고 풍흉을 관장하는 세경신이 되기까지의 내력을 담은 무속 신화이다. 이 신화는 ‘농경의 기원’을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요한 신화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여타의 신화들에 비해 여성 주인공의 활약상이 크게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여성 영웅’ 신화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세경본풀이>에 대한 종래의 연구들도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특성에 맞추어 논제가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우선 이 신화 서사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어 농경과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논의되었다.²⁾ 특히 서사의

1) <세경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논의는 해당 신화뿐 아니라 제주도 무가, 한국의 무속신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신화 서사의 성격이 워낙 뚜렷하기에 기존 논의를 크게 두 가지 논제로 묶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신화가 갖는 농경 신화로서의 성격과 의미가 여성 영웅 신화로서의 성격과 의미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두 가지가 겹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 이수자, 「농경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연구-〈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주몽신화>, <세경본풀이>, <목도령형 흥수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학회, 2006; 권태효,

주체인 자청비의 행위를 통해 추출된 인물의 자질과 능력이 농경의 원리나 그것에 바탕을 둔 세계 인식과 결합시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 신화의 주요한 매력으로 여성 주인공 자청비의 역동성과 능동성을 꼽을 수 있는데,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스스로 욕망하는 것을 쟁취하는 모습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³⁾ 요컨대 <세경본풀이>는 농경(신)의 기원이라는 신화적 관점에서의 해석과 능동적 여성 인물에 대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이 신화 서사에 대한 연구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대까지 <세경본풀이>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다소 주춤한 추세이다. 특히 농경 기원이나 여성 영웅이라는 논점의 연구는 찾기 어렵다. 최근에는 신화 서사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⁴⁾, 주인공인 자청비가 아닌 정수남에 대한 연구⁵⁾ 등 기존의

「한국 생산물기원신화의 양상과 성격」,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오세정,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신동훈,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론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3; 류정월,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정진희, 「풍요의 여신은 '생산'하는가?-'여기'의 신화 지형 탐색을 위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3)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0, 한국민속학회, 1999; 임명숙,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2000; 오정미,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2006;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종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이소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교체와 남성들로부터의 탈주-<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회, 2019.

4) 변숙자,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문화 형상화 양상 고찰」, 『어문논집』 91, 중앙어문학회, 2022.

논점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의 주제나 논점, 연구 방법이나 관점과 달리하는 새로운 연구는 언제나 반길 일이다. 하지만 <세경본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나 주요 쟁점, 혹은 정체성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종래의 두 논점과 관련된 연구는,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는 확고부동한 정답을 찾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지속되고 확장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다. 관련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경본풀이>는 비교적 뚜렷한 해석상 논란이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⁶⁾ 서사의 내용과 농경신 직능의 연관성, 자청비·문도령·정수남 세 인물의 관계, 애정 중심의 서사 전개에서 급작스러운 반전을 일으키는 자청비의 최종 선택의 의미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세경본풀이>라는 신화 서사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서사 텍스트 자체에 천착한 분석을 우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분석 및 확장된 해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신화 연구뿐 아니라, 서사로 된 텍스트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1차적으로 서사 텍스트의 통사 구조와 긴밀한 연관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이 통사 구조를 토대로 해당 서사가 맺는

5) 김나영, 「노비로 등장하는 정수남과 느진덕정하님의 정체-안사인본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6) 가령, <세경본풀이>에서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죽였던 정수남을 거두는 자청비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서사 말미에 자청비뿐 아니라 문도령과 정수남과 함께 농경신이 되는 것도 세 인물의 관계 양상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다. 이에 관련하여 신동훈은 하늘과 땅에 대한 인간의 관계 체계, 류정월은 하늘과 땅, 목축과 농업의 관계 체계에서 해석하였다. 한국인의 세계관, 제주인의 농업관에 대한 흥미롭고 타당성 있는 해석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신화’라는 장르 체계, ‘농경’이라는 문화적 추상 체계가 전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자칫 강제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사의 통사적·의미적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한 서사 분석이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신동훈(2013), 앞의 논문, 137~140쪽; 류정월(2013), 앞의 논문, 207~214쪽.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과의 관련을 따져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텍스트가 아닌 콘텍스트에 의해 텍스트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텍스트 해석이 자의적이어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요컨대 <세경본풀이>의 형식적·구성적 성격에 우선 주목하여 이 서사의 통사론적 규칙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서사의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2. <세경본풀이>의 통사론적 규칙과 서사 구성

<세경본풀이>는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신화로, 이본이 많지 않으며 이본별 전체 서사의 내용이나 흐름상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⁷⁾ 본 논의에서는 1930년대에 채록된 가장 오래된 이본인 박봉춘 구연본⁸⁾을 대상으로 하되, 이야기 논리상 충분히 삽입 가능한 에피소드는 다른 이본을 참조하여 보충하여 논하기로 한다.⁹⁾

서사를 분석할 때 흔히 가장 먼저 수행하는 기초 작업은 대상 서사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나열하는 것이다. 이때 ‘요약’과 ‘나열’은 결코 단순한

7) <세경본풀이>의 이본 연구는 박경신에 의해 수행되었고, 2015년에 이소윤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10편의 이본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2019년에 발표한 이소윤의 논문에서는 1편을 더 추가하였다.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285~294쪽; 이소윤, 「<세경본풀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9~31쪽; 이소윤(2019), 앞의 논문, 10쪽.

8)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아키마 다카시(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上)』, 심우성역, 동문선, 1991, 273~287쪽.

9) 비교적 초기에 채록되었고 내용이 풍부하여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이본은 다음과 같다. 이달춘 구연, 「세경본」,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236~264쪽; 강을생 구연, 「세경본」,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264~318쪽; 안사인 구연, 「세경본풀이」,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266~300쪽.

작업이 아니다. 이는 전체 서사를 어떻게 분절하느냐의 문제인데, 다시 말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구성 요소를 설정하는 작업인 것이다. 서사의 형태론적 분석 단위의 설정은 단위들의 결합 규칙을 드러내는 통사론적 규칙을 찾고 서사 의미론을 드러내는 근간이 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 없이 자의적으로 서사를 요약·나열해서는 안 되며, 체계적으로 서사의 시퀀스를 단위화해서 구획해야 한다.¹⁰⁾

모든 서사는 ‘최초 상황’과 ‘최종 상황’ 사이에 대립적 관계를 맺는다.

- 10) 짧은 이야기를 분석할 때는 단순한 문장 형태로 한 단락 정도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세경본풀이>처럼 분량이 많은 서사를 요약 제시할 때는 해당 서사를 분절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야기의 요약 제시는 주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결정할 뿐 아니라, 텍스트에 분석의 논리가 여기에 개입되기 마련이다. 가령, 『한국민속신앙사전』에 실린 세경본풀이의 요약본은 ‘출생담’, ‘문도령과의 만남’, ‘문도령과의 동문수학’, ‘문도령과의 사랑과 이별’, ‘자청비와 정수남의 갈등’, ‘서천꽃밭의 사위가 된 자청비’, ‘문도령과의 재결합’, ‘문도령과의 결혼’, ‘문도령의 죽음과 환생’, ‘자청비의 공업담’, ‘농경신으로의 좌정’으로 하위 서사 단락을 나누었다. 백과사전에 담은 내용이라 비교적 상세히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이수자, 『세경본풀이』,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1』, 국립민속박물관, 2009, 476~477쪽.

이에 반해 연구자들의 서사 분절이나 요약에서는 목적성이 개입한다. 김재용은 <세경본풀이>의 서사 구조에 대해 ‘탄생’을 시작으로 ‘사랑’, ‘투쟁’, ‘결실’의 네 단계로 분절하였다. 김재용(2009), 앞의 논문, 29쪽. 신동훈은 ‘탄생’,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과 이별’, ‘자청비를 욕망하는 정수남’,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회와 결합’, ‘자청비의 귀환과 삼세경 좌정’의 다섯 단계로 분절하였다. 신동훈(2013), 앞의 논문, 124쪽. 전자에서는 자청비의 일대기 서사를 자연의 주기와 결부시켜 겨울, 봄, 여름, 가을과 대칭시켰고, 후자에서는 자청비의 서사임에도 정수남을 주체로 한 서사 시퀀스를 독립시켰다. 류정월은 서사 단위를 분절하고 결합하는 방식을 기호학적 방식으로 <세경본풀이>의 통합적 구조를 정리하였다. ‘자청비의 탄생’, ‘문도령-자청비의 만남’, ‘문도령-자청비의 1차 이별’, ‘정수남의 죽음-재생’, ‘문도령-자청비의 1차 재회’, ‘문도령-자청비의 혼인’, ‘문도령의 죽음-재생(문도령-자청비의 2차 이별-2차 재회)’, ‘문도령-자청비의 3차 이별(문도령-자청비의 3차 재회)’, ‘문도령, 자청비, 정수남의 좌정’으로 정리하였는데, 전체 서사는 문도령과 자청비의 결연이 중심이 되었다. 류정월(2013), 앞의 논문, 198~202쪽. 이처럼 서사의 분절은 가치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분석 방향과 해석 방식을 함축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를 분석하는 첫 단계에서는 엄밀한 통사 구조 분석까지는 못하더라도 서사의 분절을 위한 일관된 기준이나 논리적인 접근법을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를 유발하는 사건들이 배치된다. 각 사건들은 전체 서사의 통합적 구성 원리에 적용되는 유사한 계열체의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¹¹⁾ 서사의 전체 구조를 개괄하면, 서사는 최초의 언술(A), 이 언술을 부정하는 작용과 같은 시련(non A), 최초 상황과 반대로 규정된 최종 귀결점(B)의 필수적 연계와, (B)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A)와 (non A) 사이에 삽입되는 다양한 미시 변형들로 이루어진다.¹²⁾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 서사를 ‘최초 상황’, ‘변형’, ‘최종 상황’의 세 부분으로 분절하고, 세부 사건들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세경본풀이>의 서사 분절과 서사 단위별 내용

단계	서사 단위(신화소)	내용
최초 상황	자청비가 태어나다.	부유하지만 늙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하던 부부가 승려의 말을 듣고 동계나무상주사로 원불수륙을 드리러 가다가 다른 승려의 꼬임에 빠져 서계나무백금사에 가서 원불수륙을 드린다. 동계나무상주사 승려가 약속 위반을 꾀함하게 생각하여 부부에게는 딸 자청비를, 하녀에게는 아들 정수남을 점지한다.
변형	자청비가 문도령과 만나 사랑하다.	자청비가 하녀에게 속아 못가에서 빨래를 하던 중 글공부하러 가는 문도령을 만난다. 문도령과 함께 하기 위해 부모를 속이고 남장하여 문도령과 3년간 동숙한다. 공부가 끝나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지낸다.
	문도령이 천상으로 귀환하다.	문도령이 지상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이 차서 천상으로 복귀한다.

11) 그레마스(Algirdas J. Greimas)가 제시한 ‘서사 도식(schéma narratif)’에 의하면 서사를 ‘서사 기호적 단위’에서 두 개의 계열체와 세 개의 통합체로 분절하였다. 최초 상황과 최종 상황은 대립되는 두 계열체이며, 두 상황 사이의 국면이 주인공이 겪는 시련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통합체를 이룬다. Algirdas Julien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 Paris: Larousse, 1966, pp.192~213. (박인철, 「설화 도식 재론」, 『기호학 연구』 31, 한국기호학회, 2012, 150~151쪽에서 재인용.) 이 도식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만, 모든 서사에 꼭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거시적 틀로서 최초와 최종 상황의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시련의 양상은 결정 시련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이지만 다른 시련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일부만 나타날 수도 있다.

12) 안 예노, 『서사, 일반기호학』, 홍경표 역, 문학과지성사, 2003, 33~34쪽.

	정수남이 자청비를 유인하고 겁탈하려 하다.	하인 정수남이 우마 18마리를 잡아먹고 들깎기 놔 자청비에게 문도령을 봤다고 속인다. 자청비를 산으로 유인하고 겁탈하려 한다.
	자청비가 정수남을 살해하다.	자청비가 집을 지어달라고 속인 후 잠든 정수남을 살해한다. 부모는 자청비가 일 잘하는 하인을 죽였다고 집에서 쫓아낸다.
	자청비가 환생꽃을 얻다.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사라대왕 김정신의 집에 가서 부엉새를 잡아주는 공을 세운다. 자청비는 사라대왕의 사위가 되기로 하고 환생꽃을 얻는다.
	자청비가 환생꽃으로 정수남을 살리다.	환생꽃을 얻어 와 정수남을 살려 집으로 데려온다. 그러나 부모는 자청비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내쫓는다.
	자청비가 비단을 짜서 문도령 만나려 했으나 실패하다.	자청비는 비단 짜는 노부인의 수양딸이 되어 천상으로 보낼 비단을 짜게 된다. 비단을 본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나러 지상으로 내려온다. 문밖에서 엿보려는 문도령의 손가락을 자청비가 바늘로 찌르자 문도령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간다. 실망한 노부인에게 쫓겨나자 실의에 빠진 자청비는 중이 되려고 한다.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나 결혼하다.	길에서 만난 선녀들을 도와주자 선녀들이 자청비를 문도령 집에 데려도 준다. 자청비를 만난 문도령이 부모에게 결혼을 청한다. 시부모가 시험으로 불에 달구진 칼선다리를 건너게 하자 자청비가 이에 응해 통과한다. ¹³⁾ 자청비와 문도령이 정식으로 결혼한다.
	자청비가 환생꽃으로 문도령을 살리고 대신 출전하다.	천상에서 자청비의 미모가 알려지자 선비들이 문도령을 질투하여 죽인다. 자청비가 환생꽃으로 문도령을 살린다. ¹⁴⁾ 대국에서 전란이 발생하자 문도령을 김정신의 집에 숨기고 대신하여 출전한다.
	자청비가 말을 거꾸로 타고 오는 문도령에게 실망하여 헤어지다.	자청비가 승전하고 돌아와 문도령을 부른다. 김정신의 딸이 시킨 대로 말을 거꾸로 타고 돌아오는 문도령을 보고 자청비가 실망한다. 전란 평정의 공을 인정받아 하늘옥황에게서 오품종자를 얻어 지상으로 내려온다.
	자청비가 귀가하여 정수남을 거두다.	지상으로 오자 부모는 죽고 없고, 굶어 죽어가던 정수남을 거두어 살린다. ¹⁵⁾
최종 상황	자청비가 농경신이 되다.	자청비가 지상에 오품종자를 전파하고 풍흉을 관장하다. 자청비는 안세경이 되고, 문도령은 밭세경, 정수남은 하세경이 되어 농경신이 된다.

13) 박춘봉 구연본에서는 문도령이 부모에게 애걸하여 자청비와 결혼하였으나, 약혼한 처녀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문도령의 부모는 자청비를 못마땅하게 여겨 잘못이 있으면 내쫓으려 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반해 이달춘, 안사인 구연본 등 대부분의 다른 이본에서는 자청비에 대한 머느리 자격시험에 해당하는 통과시험이 치러진다. 불에 달구어진 칼선다리를 통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14) 박춘봉 구연본과 달리 다른 이본에서는 문도령이 모락에 걸려 죽게 되고, 자청비가

최초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청비가 태어나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자청비가 태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이거나 이상적인 상황이다. 이는 서사 전개를 통해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그 반대 상황,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청비의 부모가 자식을 얻기 위해 절에 원불수륙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절에 가서 재를 올린다. 이로 인해 자청비는 딸로 태어나고, 반대급부로 자청비 집안의 하녀는 아들 정수남을 출산한다. 여기에서 자청비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음을 알 수 있고, 정수남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서사가 전개됨에 따라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최종 상황은 ‘자청비가 농경신이 되다.’로 표현할 수 있다. 최초 상황에서의 문제 상황과 반대되는 최종 상황이 신이 된다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으로 태어난 자청비가 탄생함과 더불어 갖게 된 고통을 충족하고 부정적 운명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청비가 세경신이 되면서 정수남을 거두어 신으로 좌정시킴으로써 그와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자청비가 신이 되기까지의 여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문도령은 자청비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와 밋세경이 되어 농경신의 한 축을 담당한다.

최초 상황에서 최종 상황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변형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다. 계약(금기) 위반으로 인해 탄생하면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자청비가 어떻게 하여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다. 독립된 단위에서 서사 주체의 행위나 그로 인한 변화 등은 겉으로 보기에 각양각색으로 보이더라도, 전체 서사 속에서 구성 요

환생꽃을 구해 와 문도령을 회생시키는 사건이 나온다.

- 15) 박춘봉 구연본에서는 자청비가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의 상황이 소략한데, 이본에 따라서는 자청비 본가의 상황과 정수남의 상황을 언급한다.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자청비의 부모는 모두 죽고 정수남은 심하게 굶주린 모습으로 나온다. 강을생 구연본에서는 정수남이 떠난 남아 있어 자청비가 환생꽃으로 살리는 것으로 나온다.

소로서 존재하고 기능하기 때문에 서사의 통사 규칙하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의 신화소들을 전체 서사를 이루는 계열체(paradigm)로서 그 특성에 맞게 배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변형 단계의 신화소 구성 원리

자청비가 문도령과 만나 사랑에 빠지다.			
	문도령이 천상으로 귀환하다.		
		정수남이 자청비를 유인하고 겁탈하려 하다.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이다.	
			자청비가 환생꽃을 얻고 사위가 되다.
			자청비가 환생꽃으로 정수남을 살리다.
	자청비가 비단을 짜서 문도령과 만나려 했으나 실패하다.		
문도령을 만나 며느리 시험에 통과하여 결혼하다.			
자청비가 환생꽃으로 문도령을 살리고 대신 출전하다.			
	자청비가 말을 거꾸로 타고 오는 문도령에게 실망하여 헤어지다.		
		자청비가 없는 동안 가족은 죽고, 정수남은 굶어 죽어간다.	
			자청비가 귀가하여 정수남을 거두다.
문도령과 만나기	문도령과 헤어지기	정수남을 죽이기	정수남을 살리기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가 제시한 신화 서사 읽기의 방식

은 선적 진행 방식이 아닌, 서사에서 유사한 성격의 계열체를 중심으로 이항 대립의 구조를 찾는 방식이다.¹⁶⁾ 신화 서사가 형성되는 데 있어 주요한 구성 요소인 ‘신화소(mythme)’는 결국 유사한 것이 반복되어 체계를 이루기 때문이다.¹⁷⁾ 이를 활용하여 <세경본풀이>를 분석하면 [표 2]에서와 같은 네 개의 신화소 패러다임의 관계 체계를 찾을 수 있다. 이 서사는 ‘문도령과 만나다’: ‘문도령과 헤어지다’의 대립항과 ‘정수님을 죽이다’: ‘정수님을 살리다’의 대립항이 각각 짝을 이루고 있다. 또한 첫 번째 대립항의 전자는 두 번째 대립항의 전자와, 첫 번째 대립항의 후자는 두 번째 대립항의 후자와 관련되는 동위의 체계를 이룬다.

문도령과 만나다: 문도령과 헤어지다:: 정수님을 죽이다: 정수님을 살리다.

문도령과의 만남은 정수님을 죽임과 연결되고, 문도령과의 헤어짐은 정수님을 살림과 의미상 연결되는 것이다. 실제 서사에서 자청비가 문도령과 헤어진 상태에서 정수님의 위협을 받게 되다. 다시 말해 문도령과 만나려면 정수님을 죽여야 하는 것이다. 정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청비는 집에서 쫓겨나는데, 이는 달리 말해 지상으로 돌아올 기약이 없는 문도령을 기다리는 행위를 그치고 자청비가 직접 문도령을 찾아 나서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자청비는 정수님을 살려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16) Claude Lévi-Strauss, *Structural Anthropology*, trans., Claire Jacobson & and Brooke G. Schoepf, New York: Basic Books, 1963, pp.210~211.

17) 레비스트로스가 <오이디푸스>를 분석하면서 널리 알려진 ‘신화소(神話素)’는 신화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핵심적인 단위를 의미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레비스트로스는, 언어의 기본 요소인 음소, 형태소와 같이 신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를 신화소로 상정했다. 이것은 보통 신화 속 중요한 관계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된다. 특정한 관계를 지시하기 때문에 형태상 유사한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이다. 오세정, 「신화소」,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 1』 국립민속박물관, 2012, 428쪽.

된다.

지혜를 내서 환생꽃을 얻은 자청비는 정수남을 살린 후 문도령 찾기 작업에 돌입한다. 갖은 고난을 극복하고 문도령을 만난 자청비는 시부모의 허락을 받아 정식 결혼을 하고 천상 세계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런데 전란이 발발하자 자청비는 문도령을 사라대왕 김정신의 딸에게 피신시키고 남편 대신 참전하여 전란을 평정한다. 전쟁이 끝나자 문도령이 말을 거꾸로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자청비는 새로운 결심을 한다. 자청비가 그토록 열망했던 문도령의 배필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지상으로 향하기로 한 것이다. 문도령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즉 문도령과 이별한다는 것은 결국 정수남을 살리는 것과 연결된다.

자청비가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이본들이 있다. 안사인 구연본의 경우, 가족은 모두 죽고 없으며 정수남만이 겨우 살아 있다. 이때 정수남은 심하게 굶주려서 개 허리 모양으로 휘청거리며 걷다가 주인을 만나자 점심 요기를 시켜달라고 부탁한다.¹⁸⁾ 강을생 구연본에서는 아예 정수남이 굶어 죽어 뼈만 남아 있는데, 자청비가 환생꽃으로 정수남을 다시 환생시키는 것으로 나온다.¹⁹⁾ 이러한 대목은 결국 자청비가 지상에 없는 동안 정수남은 죽거나 죽어가고 있었고 자청비가 지상으로 돌아오으로써 정수남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청비가 천상의 문도령과 헤어진다는 것은 지상의 정수남을 살린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신화 서사 텍스트의 구성 단위인 신화소의 계열체적 관계와 그 의미를 놓고 볼 때, ‘문도령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정수남의 삶과 죽음’과 동위의 계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그런데 서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문도

18) 안사인 구연, 현용준(2007), 앞의 책, 298쪽.

19) 강을생 구연, 진성기(2002), 앞의 책, 314~315쪽.

20) 류정월은 <세경본풀이>의 구조를 분석하였는데, 이 서사의 통합적 구조가 “문도령과 자청비의 서사(문도령과 자청비의 만남과 혼인)”가 하나의 틀로 기능하며 여기에

령이 자청비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와 세경신으로 좌정한다는 것은 서사의 계열체적 관계 구조를 고려할 때 다분히 문제적이다. 문도령이 자청비와 만난다는 것은 동시에 정수남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사의 통사론적 규칙을 보면, 문도령이 지상으로 와 자청비와 함께 있게 되면, 자청비는 정수남과 헤어져야 하는데, 달리 말해 정수남이 죽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 셋이 함께 세경신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셋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사연은 서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도 말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대립적 관계에 있던 인물들이 서사의 최종 단계에서 모두 세경신으로 좌정된 것에 대해 큰 틀 내에서 유사한 결론을 내린다. 자청비를 중심으로 대립적으로 형성된 문도령과 정수남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서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하늘: 인간: 땅, 신: 인간: 동물, 하늘신: 땅신·농경신: 목축신, 하늘: 땅·문명: 야생 등에서 중간 항을 의미하는 자청비는 천상과 지상, 초월적 존재와 야생적 존재 사이를 중재하여 세 존재가 한 체계로 구성되게끔 하는 중심축인 것이다.²¹⁾ 하지만 통사론적 규칙에 따른 서사의 구성 원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세 인물의 성격 좌정에 대한 해석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 문도령이 자청비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

“자청비와 정수남의 서사(정수남의 죽음과 재생)”가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류정월(2013), 앞의 논문, 202쪽.

류정월의 구조 분석은 <세경본풀이>가 자청비를 중심으로 문도령과의 서사, 정수남과의 서사가 이중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측면에서 본 논의의 분석과 유사하다. 본 논의의 분석과 뚜렷하게 차이는 점은 서사의 변이 단계에서 이 두 하위 서사는 대등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체 서사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자청비와 정수남의 서사가 중심 서사라는 점이다.

21) 대표적으로 고은지, 신동훈, 류정월, 정진희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고은지(1999), 앞의 논문, 66~67쪽; 신동훈(2013), 앞의 논문, 124~126쪽; 류정월(2013), 앞의 논문, 209~213쪽; 정진희(2015), 앞의 논문, 139쪽. 인물을 통해 표상한 가치에 대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천상의 풍요를 지상에 가져왔고, 정수남의 관계에서 풍농을 위해 지상의 목축을 재배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온 것은 ‘상/중/하’ 세경신이라는 신격의 위계를 맞추기 위한 명목적인 것이지, 실제 문도령이 자청비와 정수남과 공존하거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자청비는 하늘의 가치와 신의 능력을 획득한 인물이며, 천상에서 농경신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존재이다.

자청비는 분명 문도령에게 실망하고 지상행을 선택했다. 그리고 지상의 세경신으로 좌정할 당시 문도령의 신직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적은 보이지 않으며, 신격 체계에서도 문도령의 구체적인 기능은 없다. 정수남이 마블림제를 받는 ‘목축신’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갖는 것과도 확연히 구별된다. 서사의 최종 상황에서 서사 논리상 기능을 다했으며, 농경신의 신격 체계에서도 특별한 기능이 없이 명목만 있는 존재가 상세경 문도령인 것이다.²²⁾ 문도령의 성격은 서서 텍스트의 ‘행위소(actant)’ 차원에서 볼 때에도 잘 드러난다.²³⁾ 처음에는 서사 주체인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결합)을

22) <세경본풀이>의 모든 이본에서 세경신이 3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가장 초기의 30년대 이본에서는 ‘안/밖/하’에 ‘자청비/문도령/정수남’으로, 이후 60년대~70년대는 ‘상/중/하’가 ‘문도령/자청비/정수남’으로 나온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이본에서는 ‘상/중/하’에 ‘염제신농/문도령/자청비’로 재배치된다. 이소윤(2015), 앞의 논문, 25~26쪽.

서사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염제신농’을 끌어들이 상세경에 위치시킨 것은 세경신 신격 위상 체계의 단면을 보여준다. 문도령-자청비-정수남의 3위 체계가 실질적인 것이라면, 특히 제1의 신격인 문도령의 위상과 기능이 뚜렷하다면, 후대에 신격 체계가 변할 때 하늘신 내지 1신격의 지위가 쉽게 바뀔 리 없다. 농경신이나 목축신처럼 뚜렷한 위상과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경의 자리에는 반드시 문도령이 위치할 필요가 없으며, 농경 내지 곡종의 출처인 천상을 대표하는 신격으로 대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경신의 위계 변화는, 하늘과 땅, 신성한 문명과 야생 등을 중재하거나 조화시키는 존재로서 중세경에 대한 기존의 의미 해석과도 충돌한다. 자청비가 하늘과 땅을 오가며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것은 서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상위의 농경신이 들어오자 문도령이 중세경이 되는 것은 자청비의 중간적·중재적 기능이나 의미와 아무 상관없이, 상/중/하의 위계는 단순 서열에 대한 표시인 것이다. 이처럼 서사 최종 상황에서의 문도령이 포함된 신격 위상 체계는 신화가 구연되는 제의 맥락과 관련된 것이지 서사의 논리와는 긴 밀성이 떨어진다.

탐색하지만, 이 서사의 전체 구도 속에서 자청비가 탐색한 대상은 결국 문도령의 배필이 아니라 세경신이라는 신적이다. 자청비가 지상으로 가서 정수남을 거두어 함께 세경신이 되는 것이 서사의 최종 목표 내지 과업이라 한다면, 문도령이 아닌 정수남이 최종 탐색의 대상에 포함된다. 서사 전체를 볼 때 문도령은 자청비가 신직을 획득하고 정수남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원조자인 것이다.²⁴⁾

<세경본풀이>는 서사가 전개되면서 최종 국면에 이르면 주요 남성 인물의 위상과 의미가 달라진다. 이는 동시에 자청비의 삶의 여정에서 그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가치의 지향이 문도령으로 대표되는 천상에서 정수남으로 대표되는 지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서사의 통사론적 규칙에 기반한 현재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서사 의미론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해 보자.

3. <세경본풀이>의 구성 원리에 기반한 서사 의미

<세경본풀이>의 통사론적 규칙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레비-스트로스식의 신화 구조 분석법은 반복되는 사건의 패러다임, 즉 특정한 신화소의 대립 관계의 양상을 찾는 것인데, 서사의 의미 또한 이 관계 양상을 통해 도출된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오이디푸스> 신화가 “친밀한 가족 관계” : “친밀하지 못한 가족 관계”가 “지상 괴물의 퇴치” : “지상에서

23) Algridas Julien Greimas(1966), *op.cit.*, pp.172~191.

24) 문도령이 마지막에 지상으로 향한 것은 서사의 논리상 분명 어울리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래 천상의 인물인 문도령을 통해 자청비가 신으로 변신한 것을 정당화하거나 그녀의 신격 위상을 고양시키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도령이 농경과 관련해서 천상의 논리나 가치를 직접 대변하는 신격 기능을 가진다고 해석할 근거는 서사 내에서 직접 찾을 수 없다.

잘 견지 못함”의 신화소 관계를 통해, 이 신화가 인간의 탄생이 “남녀 결합에 의한 것”과 “땅에서 태어난 것”의 대립적 관념을 드러낸다고 보았다.²⁵⁾ <오이디푸스> 신화가 세계의 모순적 관념을 보여주는 데 그친다면, <세경본풀이>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오이디푸스가 비극적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분투했지만 결국 운명을 확인하고 스러져갔다면, 자청비는 천상과 지상의 대립적 체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²⁶⁾

자청비의 변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변형 단계의 핵심인 문도령과 만나기와 헤어지기, 정수남을 살리기와 죽이기의 대립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 관계 속에서 결국 자청비가 서사 주체로서 최종적으로 이룩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는 곧 서사의 주체가 수행해 온 일련의 과업에 대한 전체적·최종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사의 최초 상황과 최종 상황, 변형 단계의 전체적 의미화 과정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서사는 최초 상황에서 최종 상황으로 향하는 과정에 신화소들이 체계를 이루어 중간 과정, 즉 변형 단계를 형성한다. 이 단계가 최초 상황과 최종 상황을 연결시켜 서사 전체를 구성하며, 최초 상황에서 최종 상황으로의 변화를 끌어낸다. 변형 단계의 다양한 신화소들은 하나의 독립된 통사 단위 하위 서사로서 그 자체의 1차적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서사 의미론 차원에서 중요한 점은 이 구성 요소인 단위 서사들이 다른 것들과 어울려 재의미화되는 데 있다. 가령, 겁탈하려는 정수남을 자청비가 살해하는 신화소는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그 자체의 의미, 즉 자청비의 정당방위이

25) Claude Lévi-Strauss(1963), *op.cit.*, pp.214~216.

26) 우리 신화는 ‘삶’과 ‘죽음’, ‘천상’과 ‘지상’ 등의 대립적 체계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모색한다. 근원적 문제에 대해 신과 소통한 인간이 신이 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와 달리 우리 신화는 인간이 신이 된다는 점에서 두 신화 체계의 뚜렷한 통사론적, 의미론적 차이를 보인다.

자 악인 징치, 정절 수호 등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 신화소는 전체 서사의 통합체 관계에서는 서사 주체인 자청비가 집을 나서 환생꽃 탐색과 문도령 탐색의 여정을 하게 되는 계기로서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체 서사의 계열체 관계에서는 정수남을 죽여야 문도령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여기에 더해 접점이 없던 정수남과 문도령이 자청비를 중심으로 관계 체계를 형성시킨다.

[표 1]에서 보듯이 서사의 최초 상황(A)은 ‘자청비가 태어나다.’이다. 서사 전체의 주요한 의미상 관계를 보다 정확히 드러내면 ‘자청비가 여성 인간으로 태어나다.’ 내지 ‘자청비가 여성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최초 상황의 부정 상태인 서사의 최종 상황(B)은 ‘자청비가 농경신이 되다.’이다. 이는 의미상 ‘자청비가 농경신으로 (다시) 태어나다.’ 내지 ‘자청비가 농경신이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청비가 맡은 농경신은 젠더가 무화된 신이 아니라 문도령과 정수남의 관계에서 규정되듯이 철저히 ‘여성 신’으로서 농경신이다. 자청비의 존재론적 자질이 ‘여성 인간’이므로 이에 대한 부정은 ‘여성 신’이거나 ‘남성 인간’이 된다. 따라서 이 서사는 자청비가 ‘여성’ 자질은 유지한 채, ‘인간’에서 ‘신’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초 상황(A)에서 최종 상황(B)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자. 이 변형의 단계는 최초 상황의 모순 관계에 있는 것(nonA)으로 서사 주체가 행위를 통해 주어진 제한이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변형 단계는 의미상 ‘여성 인간이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다.’라고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여성 신이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다.’라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서사에서 존재론적 위상의 변화는 ‘할 수 있음/할 수 없음’의 문제, 즉 ‘역량의 문제인 것이다.

[표 3] 전체 서사 구조에서의 사건과 의미

	최초 상황(A)	변형 단계(nonA)	최종 상황(B)
사건	자청비가 태어난다.	자청비가 다양한 사건을 겪다(행위를 하다). : 문도령과 만나다, 헤어지다/ 정수남을 죽이다, 살리다.	자청비가 농경신이 되다. (농경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의미	자청비가 여성 인간이다.	여성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여성 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자청비가 여성 신이다.

<세경본풀이>는 존재론적으로 여성 인간이라서 갖게 되는 제약을 극복하는 이야기이며, 여성 인간이 여성 신이 되는 과정을 서사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서사의 의미 분석은 자청비의 존재론적 변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며, 서사가 전개되면서 자청비가 할 수 있게 된 역량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성 신으로 변신한 자청비가 왜 농경신이 되는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청비가 본격적인 수행을 하기 전, 그녀가 가진 기본 자질이나 역량은 정수남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정수남은 하층 ‘남성’인데, 대식(大食)을 하고, 우마를 돌보고, 집을 짓는 등 강한 육체적 힘과 노동력을 지녔으며, 자청비를 탐하여 겁탈하려는 성적 폭력성을 지녔다. 이에 반해 자청비는 상층 ‘여성’으로, 빨래하기나 비느질하기 등 여성의 대표적 가사 노동을 수행하며 남장하여 글공부를 수행하는데, 이를 통해 여성적 노동 능력과 상층 남성의 지적 능력을 지닌 존재임이 드러난다. 두 인물은 극단적 대립 관계에 놓이는데, 이 갈등 상황에서 신분상 상/하 관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강한 남성적 육체성을 가진 정수남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자청비는 위기에 몰리지만 지혜를 발휘하여 정수남을 속이고 그의 목숨을 취한다. 그 결과 정수남을 회생시키기 위해 환생꽃을 구해야 하는데 자청비는 이 과정에서 남장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원하는 바를 쟁취한다. 이 서사에서 환생꽃 획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환생꽃을 통해 자청비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역량을 획득

하고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²⁷⁾ 그런데 환생꽃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청비는 ‘남성’인 척 위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여성적 능력 내지 여성성의 발현을 통해 획득한 역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재생 시키기와 같은 비인간적 역량을 갖추었다더라도 문도령의 배필이자 천상의 며느리에 어울리는 ‘여성 신’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자청비의 여정은 지속된다.

집을 나서 문도령을 찾는 과정에서 자청비는 수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역량을 획득하고 발휘하게 된다. 정수남은 ‘남성 인간’으로, 육체성과 관련된 행동 역량에서 자청비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면, 문도령은 ‘남성 신’으로, 존재론적 신분 차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문도령이 특별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천상 존재라는 것 자체로 자청비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우위에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자청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문도령의 ‘아내’로서 필요한 역량이다. 자청비는 ‘여성 인간’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량을 보이며, 이에 따라 점차 문도령이 있는 천상 세계에 접근하게 된다. 자청비의 비단짜기 능력은 이미 천상 세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문도령과 만남이 거의 이루어질 뻔했다. 여기에 더해 자청비는 천상에서 쫓겨난 선녀들을 돕는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천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드디어 문도령과 만난다. 이어 문도령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위한 시험으로 불에 달궈진 갈선다리를 통과하는 고통의 과업을 완수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여성’ 자질과 더불어 ‘신’의 역량을 모두 선보인 자청

27)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였을 때 그녀의 부모는 딸을 두둔하지 않고 자신들을 먹여 살릴 정수남이 사라진 것에 대해 분노한다. 그리고 정수남을 살려내라고 명했던 그녀의 부모는 정작 자청비가 정수남을 환생꽃으로 살려 내자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자청비의 역량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한다. 이를 통해 자청비 부모로 대표되는 인간 세계에서는 자청비가 획득한 재생 능력이 보통의 인간 능력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비는 문도령의 아내이자 천상의 며느리가 된다. 그녀는 이제 천상 세계에서 요구하는 온전한 ‘여성 신’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후 천상 세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청비가 나서서 이를 해결한다. 남편인 문도령을 대신해 출전하여 전란을 평정함으로써 시부모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는다. 그런데도 자청비는 천상에서의 문도령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고 곡종을 얻어 지상으로 향한다. 문도령이 말을 거꾸로 타고 오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기에는 그녀의 치열했던 삶의 내력을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남편을 설득하거나 계도하는 것은 시도하지 않고, 왜 그녀는 혼신을 다해 성취한 천상의 삶을 포기하고 지상을 택했을까?

서사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통사론적 규칙상 문도령과 만나고 사랑을 지속하려면, 자청비는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 직접적으로는 자청비가 정수남을 살해한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문도령과 약혼했던 여인을 자살하게 만든 것이다. 문도령 만나기가 정수남이나 문도령의 약혼녀 죽이기와 연결되었듯이, 결혼 이후 문도령과 만남을 유지하고 문도령을 죽음의 위험에 빠트리지 않기 위해 자청비가 수행한 것도 결국 전장에서 살육이다.²⁸⁾ 논리상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관계를 포기했다면 다른 존재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자청비의 최종 선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행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라는 것을 각성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람 죽이기의 극단적인 사례인 전쟁에서 다수의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대립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내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바로 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곡종을 나눠

28) 자청비가 전란을 평정했다는 것은 여러 이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청비가 전장에서 직접 적병을 죽이는 것이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 자청비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확실하다.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전란 평정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수레밀망약심뫼으로 적병을 물리친 것으로 나온다. 안사인 구연, 현용준(2007), 앞의 책, 298쪽.

주고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다. 정수남이나 문도령이 죽자 이들을 환생시키는 것도 죽이는 것에 반대되는 살리기 행위이지만,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생산적이며 선제적인 살리기 행위이다. 농경은 죽음 이후의 처방이 아닌, 죽음을 방지하며, 더 많은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다.²⁹⁾

이 신화에서 자청비의 마지막 선택, 천상 세계의 여성 신에서 지상의 농경신으로의 변신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청비는 부모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원래 자신에게 예정된 존재론적 위상보다 결핍되거나 불완전한 여성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녀는 일생 동안 자신의 존재론적 제약을 뛰어넘고자 욕망하고 행위하였다. 여성 인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 인간이면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여성 신이 되었다. 남성 신이 수행해야 할 전란 평정을 완수한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정초된 천상 세계의 일원으로서 ‘여성 신’의 정체성마저 뛰어넘었다. 이제 자청비는 ‘여성/남성’, ‘인간/신’의 존재론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역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도령에 ‘예속된’ 여성 신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날 수 있으며, 스스로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청비는 농경신으로의 변신을 선택하여 지

29)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자청비의 농경신으로서의 성격을 죽음에서 삶으로의 재생과 관련시켜 논의하고 서사 의미를 분석해 왔다. 강진옥은 자청비가 정수남과 문도령을 재생시키는 것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고 되살림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대모신적 면모는 농경 원리의 발현으로 보았다. 강진옥(2005), 앞의 논문, 334~335쪽. 김재용은 자청비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이별과 재결합의 반복인데 이것이 죽음과 재생의 상징적 순환으로, 식물의 파종·생장과 관련시켰다. 김재용(2009), 앞의 논문, 69~70쪽. 신동훈은 자청비가 죽은 문도령을 살리는 내용이 죽은 정수남을 살리는 내용과 정확하게 짝을 이룬다고 보며 자청비가 문도령과 함께 곡종을 얻어 지상으로 내려온 것과 정수남과 함께 농사를 돌보는 신이 되었다는 것은 비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합적인 서사적 귀결로 보았다. 신동훈(2013), 앞의 논문, 137쪽. 이러한 논의는 <세경본풀이>에 대한 해석을 풍부하게 하고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재생의 의미에 과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서사의 통사 구조를 재생을 중심으로 파악하거나, 전체 서사의 구조를 고려한 의미 분석보다는 재생과 관련된 맥락 중심의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상의 인간을 살리는 ‘독립된’ 여성 신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최종 수립한다.

4. 결론

본 논의는 제주도에 전승되는 농경 기원 신화 <세경본풀이>를 대상으로 서사의 통사론적 규칙을 찾고 이를 토대로 신화 서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서사는 ‘여성 인간’이 ‘여성 신’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최초 상황에서 최종 상황으로의 변화는 서사를 이루는 변형 단계의 단위 형태인 신화소들의 관계 체계를 통해 드러난다. 이 통사론적 규칙은 ‘문도령과 만나기’와 ‘문도령과 헤어지기’, ‘정수남을 죽이기’와 ‘정수남을 살리기’의 대립 체계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자청비가 인간에서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문도령을 만나고 헤어져야 하며, 정수남을 죽이고 살려야 하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세경본풀이>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애정담을 중심 서사로 파악했지만 서사의 통사론적 규칙에 따르면 변형 단계에서는 자청비와 문도령, 자청비와 정수남의 결연 서사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서사를 대상으로 하면 최종적으로 자청비가 천상을 떠나 지상으로 향하는데, 이는 문도령과 헤어지고 정수남을 살리는 것을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세경본풀이>는 자청비와 정수남의 서사가 전체 서사의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사 말미에 언급되는 세경신 신직 체계에서, 문도령은 실질적인 기능이 없는 명목상의 밋세경(상세경)인 것이고 지상의 농경에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는 세경신은 안세경(중세경)인 자청비와 하세경인 정수남이 되는 것이다. 자청비와 정수남, 이 두 사람의 관계 회복 내지 새로운 관계 맺기가 최초 상황에서 주어진 존재

론적 관계의 불완전성을 극복한 최종 상황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세경신이 되는 것에 관한 의미 분석은 신화 의미론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다. 자청비의 파란만장한 일생에 대한 이해이며, 동시에 그녀의 삶이 세경신의 직능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규명이기 때문이다. 서사의 통사론적 규칙에 근거한 ‘사람 죽이기’와 ‘사람 살리기’의 대립 체계 속에서 자청비의 행위와 역할을 이해한다면 자청비가 세경신이 되는 과정과 그것의 함의가 보다 명확해 진다. 그동안 많은 논의에서 환생꽃과 관련된 자청비의 재생 능력에 주목하여 이를 농경의 원리나 대지의 생산력과 연결시켰다. 그런데 환생꽃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청비는 여성성을 발휘하지 않았으며, 환생꽃으로 살리는 역량은 천상 세계의 여신이 되기 전에 이미 획득한 것이다. 또한 환생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미 죽음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 전란 평정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본 경험을 한 자청비는 많은 사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법으로 ‘농경’을 선택한 것이다. 이 신화의 내용이 농경의 원리와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더라도, 그녀의 일생을 통해 구현된 죽이기와 살리기의 대립 체계 속에서 살리기에 대한 최종 선택으로서 농경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이 신화 서사의 전체적·최종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부모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예정된 존재론적 위상보다 결핍되거나 불완전한 존재로서 여성 인간 자청비가 태어났다. 이 존재는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하여 마침내 신적 존재가 된다. 여성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나아가 남성 신이 해야 하는 일까지 수행하면서 ‘여성/남성’, ‘인간/신’의 존재론적 제약을 모두 뛰어넘는다. 천상 세계에서 인정받은 자청비는 여성 신이 되었지만, 그 존재론적 정체성은 누군가에 예속된 것이었다. 자청비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 제약마저 뛰어넘어 스스로 자신의 존재론적 위상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태어날 당시 자신과의 존재론적 연관을 맺고 있던 정수남을 비롯하여 지상의 사람을 살리기로 결심한 자청비는 ‘농경신’이 되어 독립적인 여성 신으로 정체성을 정립한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연구-〈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회, 2005, 307~346쪽.
-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징」,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53~76쪽.
- 권태효, 「한국 생산물기원신화의 양상과 성격」,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413~436쪽.
- 김나영, 「노비로 등장하는 정수남과 느진덕정하님의 정체-안사인본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1, 한국구비문학회, 2018, 105~140쪽.
-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53~74쪽.
- 류정월,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93~219쪽.
-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283~303쪽.
- 박인철, 「설화 도식 재론」, 『기호학 연구』 31, 한국기호학회, 2012, 141~180쪽.
- 변숙자,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문화 형상화 양상 고찰」, 『어문논집』 91, 중앙어문학회, 2022, 113~153쪽.
- 신동훈,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론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3, 119~145쪽.
-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上)』, 동문선, 1991, 1~394쪽.
- 안 예노, 홍정표 역, 『서사, 일반기호학』, 문학과지성사, 2003, 1~232쪽.
- 오세정, 「신화소」,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 1』 국립민속박물관, 2012, 1~428쪽.
- 오세정,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59~290쪽.
- 오정미,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2006, 199~229쪽.
- 이소윤, 「〈세경본풀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1~120쪽.
- 이소윤, 「해계모니적 남성성의 교체와 남성들로부터의 탈주-〈세경본풀이〉를

-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회, 2019, 5~44쪽.
- 이수자, 「농경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147~172쪽.
- 이수자, 「세경본풀이」, 『한국민속신앙사진: 무속신앙 1』, 국립민속박물관, 2009, 475~179쪽.
- 임명숙,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2000, 293~323쪽.
-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5~42쪽.
- 정진희, 「풍요의 여신은 ‘생산’하는가?—‘여기’의 신화 지형 탐색을 위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83~224쪽.
-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55~482쪽.
- 좌혜경, 「자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0, 한국민속학회, 1999, 181~199쪽.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1~920쪽.
-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주몽신화>, <세경본풀이>, <목도령형 홍수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363~394쪽.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859쪽.
- Algirdas Julien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 1966, pp.1~263.
- Claude Lévi-Strauss, *Structural Anthropology*, trans., Claire Jacobson & and Brooke G. Schoepf, New York: Basic Books, 1963, pp.1~410.

ABSTRACT

Syntactic Rules and Narrative Semantics of 〈Segyeongbonpuri〉

Oh, Se-jeong

This paper aims to find the syntactic rules of the narrative in the agricultural origin myth 〈Segyeongbonpuri〉 and analyze the meaning of the narrative based on those rules. This myth is a narrative of a 'female human' becoming a 'female god', and the change from the initial situation to the final situation of the entire narrative is well expressed through the syntactic rules of the mythemes, which is the unit form of the transformation stage that constitutes the narrative. This can be expressed as a system of opposition between 'meeting Moon-doryeong' and 'parting with Moon-doryeong', and 'killing Jeongsunam' and 'saving Jeongsunam'. In the entire narrative, Jacheongbi kills Jeongsunam to meet Moon-doryeong, and then breaks up with Moon-doryeong to save Jeongsunam. In this process, Jacheongbi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her innate ontological identity, becomes a goddess in the heavenly world, and ultimately takes her place as a goddess of agriculture in the human world.

According to the syntactic rules of 〈Segyeongbonpuri〉, the entire narrative is centered around the narratives of Jacheongbi and Jeongsunam, and in the position system of agricultural gods, unlike Jacheongbi and Jeongsunam, Moon-doryeong exists only in name. Also, if we understand the actions and roles of Jacheongbi within the opposing system of 'killing people' and 'saving people,' the process of Jacheongbi becoming a goddess of agriculture and its implications become clearer. After repeated acts of killing and reviving, Jacheongbi chose agriculture as the best way to save many people on earth. This myth is about the ontological transformation of a female human born as an imperfect being. She demonstrates the ability to overcome the ontological constraints of

'female /male' and 'human/god' and is reborn as an independent being who chooses for herself rather than a being subordinate to someone. And her story tells us that the most necessary value for 'living' for imperfect humans on earth is agriculture.

Key Words *Segyeongbonpuri*, myth of the origin of agriculture, myth of female hero, syntactic rules, narrative semantics, paradigm, binary opposition

논문투고일: 2025.07.20.

심사완료일: 2025.08.11.

게재확정일: 2025.08.13.